

내일부터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

전북교육청, 대응 메뉴얼 마련 일선학교 시달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파업 대응 메뉴얼을 마련, 지난 6월 25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메뉴얼에는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

직종별 세부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및 파업 관련 신속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에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학교 급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수 급식종사직원의 파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도록 하거나 빵,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수의 급식종사직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급식 운영을 유도하고, 식단 간소화 및 급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분장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특수교육 아동 지원과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파업기간 동안 파업대책반을 설치해 각급학교의 급식실시 여부와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파업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정무 교수, NATO 두 번째 연구과제 수행

무인 비행기 탑재용 소형 주파수 측정 시스템 개발

올해부터 3년 간 신경가스 검출 위한 적외선 센서 연구

전북대학교 김정무 교수(공대 전자공학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SPS(Science for Peace & Security)의 두 번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NATO SPS(Science for Peace & Security)는 나토군 창설 이후 과학 분야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1958년부터 과학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60주년을 맞았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한국 최초로 NATO SPS의 연구 과제에 선정돼 스페인 CTTC연구소와 우크라이나 IRE NASU 대학과 '무인 비행기 탑재용 소형 주파수 측정 시스템(Compact Sensor System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을 연구했다.

이에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NATO SPS 6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10년간 연구업적이 뛰어난 팀에게

주는 '2018 NATO SPS Partnership Prize'를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선정된 연구 과제 주제는 '신경 가스 검출을 위한 적외선 센서 연구(Nerve Agent Detection using a Compact Infrared Sensor)'로, 표면 플라즈몬 공진(Surface Plasmon Resonance) 효과를 이용한 신경가스를 검출하는 소형 센서 모듈을



구현하는 과제다. 이 연구과제는 앞으로 3년 간 진행된다. 이에 김 교수 연구실에서는 박사과정인 이연수 학생이 주도적으로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Otto 방식의 SPR 소자를 설계, 제작,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무 교수는 "나토 회원국으로 수년 동안 주관 연구기관인 스페인 CTTC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많은 실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협력과제를 통해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국제 협력 과제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기출란 대학원생, 암치료 연구 '최우수'

더 많은 양 담고 암 잘 찾는 캡슐 신소재 개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바이오나노시스템과 소크라 기출란 학생(석사과정·지도교수 김철생)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제4회 Euro Intelligent Materials 2019 학회'에서 암 표적 치료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기출란 대학원생은 '열화학적 암치료를 위한 생체 적합성과 지극 민감도가 높은 다공성 초상자성체 배터라이트 입자의 제조 및 in vitro 항암 효과'라는 주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직경이 800nm 이하의 많은 구멍을 가지는 구형 초자성체 배터라이트 입자(FMVP)의 합성을 제안하여 FMVP내부에 산화인동 나노입자(IONPs)와 DOX분자를 캡슐화 되도록 합성한 것.

이렇게 캡슐 된 신소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항암제를 담을 수 있다. 여기에 교류 자기장을 인가하여 암을 표적화 할 수 있고, 암의 특정 pH에서 캡슐이 녹으면서 항암제를 방출,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간 다공성 무기 나노입자인 배터라이트 형태는 탄산칼슘



(CaCO3) 중 저가이면서 생분해성과 높은 약물 탑재 능력 그리고 우수한 생체적합성 및 pH에 민감한 분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약물전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와 형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정량의 약물을 탑재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면 약물 전달에 있어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7월에도 다양한 학부모교육 운영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7월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야 놀자, 학부모 경제교육'이 3일~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강사를 초청, 자본주의 구조의 비밀과 한계를 분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 원인을 근원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놀부(父)랑 놀자(子) 아버지 교육'은 6일 천장산 때구르르 솔밭울 숲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및 아버지 60명과 함께 '자연은 아이들의 놀이 친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은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을 초대, 유·초등 학부모를 위한 '부모가 알려주는 성교육'과 중·고등 학부모를 위한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특강을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난달 29일 평생관 강당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주비전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4기 수료식 성료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규태)은 지난 달 29일 평생관 강당에서 전방간호조무사협회 최영란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4기 교육생 31명에 대한 수료증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상, 전북간호조무사협회

전북지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엔 수료하는 4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 360시간, 실습 340시간 등 총 7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전주비전대학교는 현재까지 142명

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배출했다. 배출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이규태 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교령자를 방문해 치료 및 예방하는 지역의 자랑스러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돼 달라며 간호조무사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은 지난 6월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남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조수경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가 성폭력과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특히 직장 내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 배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이규태 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교령자를 방문해 치료 및 예방하는 지역의 자랑스러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돼 달라며 간호조무사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음을 요청하지도 않고, 법·제도적 구제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성폭력과 음란전화문자 메일, 핸드폰 촬영 등 신체적접촉 없이 행해지는 성적행위 등의 성희롱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고 사례별 대응방법과 주변인의 역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현실감 있게 교육이 진행됐다.

전북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계기로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